

페루 신자유주의와 광산 갈등: 공가 광산 개발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오삼교
위덕대학교

오삼교(2016), 「페루 신자유주의와 광산 갈등: 공가 광산 개발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7(1), 107-147.

초록 공가 광산 개발 반대운동은 90년대 초부터 광산 개발 지역 농민들이 경험한 자신의 영토와 자연자원에 대한 통제력 상실, 수자원의 양적 고갈과 수질 오염, 야나코차 사의 주민에 대한 기만과 위협, 일방적으로 회사만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채굴산업 정책은 민간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농민으로부터 토지와 물을 일방적으로 강탈하면서 전개되어 왔다. 이 점에서 공가 반대운동은 페루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광산개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광산 개발 저항운동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 페루 정부는 정책과 억압을 통해 이러한 강탈을 적극 지원해왔으며 이 점에서 페루 신자유주의 국가는 단순한 시장 만능국가를 넘어 폭력 국가이자 억압 국가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공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지역사회 주민에 비해 막강한 자원능력을 가진 광산회사의 회유와 신자유주의 국가의 억압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개발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공가 사례는 국가와 광산기업의 개발 연합에 대해 주민의 동원과 조직을 통해 이를 저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 신자유주의 개발 드라이브에 대한 민주적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페루, 신자유주의, 공가, 야나코차, 광산 갈등

* 이 연구는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I. 들어가는 말

페루는 광산국가다. 2012년 현재 아연, 주석, 구리, 은 생산은 세계 3위이며 몰리브덴과 수은은 세계 4위, 납은 5위, 금은 6위의 생산량을 보이며 대부분의 광물 생산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위나 2위를 기록하고 있다(PWC 2013). 광물은 페루 수출의 60%를 차지하며 2000년 이후 세계광물 가격 상승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수요의 증대를 바탕으로 페루 경제는 크게 성장하였다. 페루의 GDP는 2000년 533억 달러에서 2014년 2,210달러를 기록하여 거의 4배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6.8%에서 2008년 9.8%, 2010년 8.8%, 2013년 5.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남미 국가로서는 보기 드문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속적 성장과 함께 빈곤율도 크게 감소하였다. 페루의 2004년도 빈곤율은 58.7%였으나 2012년에는 25.8%로 크게 감소하였다.¹⁾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소득양극화와 경제 불안, 실업 증가 등을 경험한 다른 많은 남미국가들과 대비된다.

그러나 채굴산업에 기댄 성장은 환경과 인권의 희생을 수반한 것이었다. 광산부문에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환경오염에는 등을 돌리고 있으며 고산시대 농민들의 광산 개발 반대 시위는 가혹하게 진압하였다. 국립경찰이 민간 광산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위 주민들을 진압하는데 동원되는 국가 권력의 사유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페루에서의 자원의 저주는 경제의 파행보다는 사회환경적 갈등의 악화와 정치적 민주성의 약화로 나타나고 있다.

페루는 다국적기업 주도의 광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 국민의 인권보다 다국적기업의 이익 추구를 중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환경오염을 방치하며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소홀히 해왔다. 2006년부터 매달 사회적 갈등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 호민관청(Defensoría del Pueblo)에 의하면 사회적 갈등은 2006년 7월의 82건에서 2014년 10월에는 21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

1) *Peru's Business & Investment guide 2014/201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4. Peru.

났다.²⁾ 사회환경적 갈등의 70%가 광산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주원인이라는 점에서 페루 경제의 성장은 고산지대 광산인근 주민들의 인권 및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담보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광산개발 지역은 오랜 개발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과 시위를 야기하고 있다.

이 글은 페루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의 그늘에서 나타나고 있는 페루 북부 까마르카(Cajamarca) 주 소재 야나코차(Yanacocha) 광산 주변 농민들의 광산 개발에 대한 저항의 생성과 동원, 그 과정에서의 국가와 광산회사의 억압과 폭력, 그리고 지역사회의 동원과 전략을 다룬다. 풍가(Conga) 광산은 야나코차 광산회사의 광산 개발 예정 지역 중 하나로 야나코차의 개발 시도에도 불구하고 광산 인근 주민들의 줄기찬 반대운동으로 여러 차례의 개발 시도가 저지되어왔다.

페루 채굴산업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최근 전세계적 나타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특징인 강탈과 추방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Sassen 2014). 페루 광산 지역 공동체의 저항운동은 전세계적 자원 강탈에 대한 반대운동이며 생태계 보존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강탈과 저항이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하며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이 글은 세계적 강탈과 추방의 구조에서도 지역의 역량과 조건에 따라 작은 공동체도 저항이 가능하고 개발드라이브를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풍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풍가 광산은 신자유주의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다국적 광산회사가 오지 주민들의 반대로 개발에 실패한 경우로서 남미의 대표적 신자유주의 국가인 페루에서 국가와 기업의 어떠한 행태가 주민들의 반대운동을 유발하였으며 주민들은 어떻게 국가와 다국적기업의 회유와 억압을 이겨내고 개발을 저지할 수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풍가 광산 개발 반대운동은 90년대 초부터 광산 개발 지역 농민들이 경험한

2) 15° Observatorio de Conflictos Mineros en el Perú, Reporte segundo semestre 2014, CooperAccion, Grufides, Fedepaz, Diciembre, 2014.

자신의 영토와 자연자원에 대한 통제력 상실, 수자원의 양적 고갈과 수질 오염, 야나코차 사의 주민에 대한 기만과 위협, 일방적으로 회사만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채굴 산업 정책은 민간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농민으로부터 토지와 물을 일방적으로 강탈하면서 전개되어 왔다. 이 점에서 쾡가 반대운동은 페루 나아가 라틴 아메리카 광산개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광산 개발 저항운동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

페루 정부는 정책과 억압을 통해 이러한 강탈을 적극 지원해왔으며 이 점에서 페루 신자유주의의 국가는 단순한 시장 만능국가를 넘어 폭력 국가이자 억압 국가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쾡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지역사회 주민에 비해 막강한 자원능력을 가진 광산회사의 회유와 신자유주의 국가의 억압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개발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쾡가 사례는 국가와 광산기업의 개발 연합에 대해 주민의 동원과 조직을 통해 이를 저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 신자유주의의 개발 드라이브에 대한 민주적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II. 쾡가 프로젝트

1. 쾡가 프로젝트 개요

야나코차 광산은 인도네시아의 그라스버그(Grasberg) 금광에 이어 세계 2위, 중남미 최대의 금광으로 페루 북서쪽 까하마르카 주도인 까하마르카 시 북쪽 45km 해발 3,500-4,100미터의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다. 광산 소유주인 야나코차 광산회사(Minera Yanacocha S.R.L)는 1992년 설립되어 1993년부터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미국 덴버에 본사를 둔 뉴몬트(Newmont)가 51.35%, 페루 광산회사인 부에나벤투라(Buenaventura)가 43.65%, 세계은행 그룹의 IFC가 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야나코차는 페루에서 1976년 이후 최초의 광

산 부문에 대한 대규모 외국 투자로 후지모리의 신자유주의적 광산개발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pongá 광산은 야나꼬차가 개발 예정인 또 하나의 광산으로 까하마르카 시 북동쪽 75km 지점 3,700-4,300미터 고도에 위치한 금광 및 구리 광산이다. 야나꼬차는 페루 역사상 최고액인 48억 달러를 투자하여 20년 동안 약 1,160만 온스의 금 (2011년 11월 26일 시가로 약 200억 달러)과 31억 파운드의 구리(2011년 11월 26일 시가로 100억 달러)를 생산할 계획이다.³⁾ pongá 광산은 1991년 최초 발견되었으나 탐사는 2004년 시작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는 2010년 승인 받았다. 2011년 7월 27일 야나꼬차는 pongá 개발에 48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 하였다. 그러나 주정부와 지역 주민들은 pongá개발로 이 지역의 생태계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지역의 광물 함량은 매우 적어서 바위 1톤에 금 1그램 미만, 구리 0.2% 함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20년간 하루 9만2천 톤의 바위를 분쇄해야 한다.⁴⁾

2. pongá 지역의 생태적 특성

이 지역은 까하마르카 주에 위치한 셀렌딘 군(Celendin Provincia)의 소로추코(Sorochuco Distrito), 우아스민(Huasmin Distrito), 그리고 인접한 까하마르카 군(Cajamarca Provincia)의 엔까나다(Encanada Distrito)에 위치해 있으며 pongá 개발로 영향을 받는 간접영향권은 총 1만 6천 헥타아르에 이른다. 야나꼬차는 개발 영향권에 32개 마을이 있다고 주장하나 까하마르카 주정부는 우아스민, 소로추코, 엔까나다 지역에만 200여개의 원주민 마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Pretell 2012, 21).

pongá 프로젝트가 커버하는 영역의 대부분은 5개 주요 강 유역의 상류지역에

3) <http://news.yahoo.com/perus-highlands-conundrum-gold-versus-water-204556995.html>.

4) <http://lab.org.uk/peru-el-maranon-the-environment-communities-and-rivers-bet-damned>.

위치하고 있으며 습지와 호수가 많고 매년 평균 강수량이 1,150mm에 달하는 다습지(wet area)로 2009년의 수자원법(Law 29338, 75조)에서 정의한 취약생태계에 해당된다. 이 지역에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약 600개 이상의 샘이 분포되어 있다. 이 지역은 단층과 열극대, 카르스트 지형에 화산암과 빙하퇴적층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이들 지형은 투수성이 커서 지표수, 지하수, 샘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많은 호수들이 단층과 단열대(fracture zone: 두 지역을 가르는 급사면 지형), 그리고 일부는 화산이 무너진 지형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지표수와 지하수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내부 수압이 달라지면 물의 분포가 크게 영향 받게 된다(Pretell 2012, 23). 이 정도 고도에서 습지는 우기에는 스펀지처럼 물을 포집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건기에서 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3. 개발이 초래하는 문제점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회사 측의 개발 계획은 산정지대의 4개 호수(Perol, Mala, Azul, Chica 호)⁵⁾를 없애고 이 중 두 개 호수는 채굴을 위해 물을 빼고, 나머지 두 개는 시안화물로 오염된 광물찌꺼기를 쌓아두는 광미댐(폐석 적치장)으로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이들 호수들의 수문학적 특성과 상호 연결로 인해 실제로는 20개 이상의 호수가 피해를 입고 600여개에 이르는 대부분의 샘이 말라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일단 조업에 들어가면 풍가 광산은 매년 200만 입방미터, 시간당 22만 8천 리터의 물을 사용하게 된다. 반면 농가 한 호당 물 사용량은 하루에 30리터 정도이다.⁶⁾ 페루는 중남미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나라이며 까하마르카는 이미 고질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과 환경NGO들은 개발로 인한 취약한 생태계의 교란으로 생활과 농업에 필요한 물을 고갈 시킬 우려를 오랫동안 제기해왔다.

5) 이 호수들은 Jadibamba, Chailhuagon, Chirimayo, Chugurmayo, Toromacho 강의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다.

6) http://www.ucobserver.org/features/2013/06/big_gold/.

이런 우려에 대해 회사는 우기에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호수 아래 지대 사람들에게도 연중무휴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더 큰 저수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인공저수지의 건설이 이 지역의 수문학적 연구에 기초하여 생태계를 보전해 줄 것이라는 증거는 없으며 연구도 되어 있지 않았다. 회사는 쾡가 개발이 가져오는 환경오염 우려 및 지역의 물 공급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수차례의 문제 제기에 무응답으로 일관해왔다.

광산개발의 부작용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4개 호수에서 물이 빠지면 볼도저와 덤프트럭들이 산 정상과 인근 지역을 파헤친다. 이 단계에서 수백만 톤의 바위가 부서지고 흩어져 위험한 비소, 카드뮴, 크로뮴, 납, 망간, 수은, 니켈, 셀레늄, 탈리움, 바나듐, 그리고 우라늄 쓰리움, 포타슘 같은 자연방사성 물질 등의 독성 광물이 지역의 주산업인 농축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⁷⁾

국제적으로 저명한 수문학자인 로버트 모란(Robert Moran)은 회사의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그런 식의 광산개발 제안은 캐나다를 포함하여 선진국에서는 법적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⁸⁾ 모란에 의하면 암석과 광미에서 나오는 광산폐기물은 광산 폐쇄 이후에도 수백 년 간 남아있을 것이며 따라서 정수 작업은 아나코차 광산 폐쇄 이후에도 거의 영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II. 쾡가 개발 반대운동

1. 개발 반대 근거

쾡가 광산 개발 반대파들은 쾡가의 환경영향평가가 대수층 가능성이 큰 산

7) 작은 금조각을 얻기 위해 시안화용액이 잘게 부서진 암석들 위로 부어지면 광석에서 금이 분리된다. 이 과정을 cyanide heap leaching이라고 부르는데 이 방식이 금을 추출하는 가장 저렴하고 따라서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방식이다. 대규모 금광은 1년 평균 시안화물 사용량이 1,900톤을 넘는다. 시안화물 0.1g은 치사량이다 (http://www.ucobserver.org/features/2013/06/big_gold/).

8) http://www.ucobserver.org/features/2013/06/big_gold/.

정상에서의 노천갱 채굴로 인한 하류 손상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까하마르카 주지사인 그레고리오 산토스(Gregorio Santos)는 콩가 프로젝트는 고산 지대의 수자원 고갈을 유발하여 고산지대 거주민만이 아니라 조림과 지속가능한 농업, 어류 양식에 필요한 수자원을 위협하여 저지대에 거주하는 수만 명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2011년 11월 총리실에 보고된 환경부 보고서는 회사에 상세한 수문학 및 수문지질학적 분석(hydrological and hydrogeological analysis)⁹⁾를 권고하고 광산개발이 대수층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11월 27일 환경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회사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에서 몇 가지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다. 독성폐기물 누출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문학적 연구는 전혀 행해지지 않았으며, 광산 활동으로 영향 받을 수 있는 미세 유역(micro-basins)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생략되었고, 지역 공동체들은 콩가 금광개발에 대해 전혀 통지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¹⁰⁾

콩가 프로젝트에 비판적인 모란의 보고서(Moran 2012)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며 광산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위험이 크고 일단 거의 불가피한 오염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의 보고서는 무려 26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회사 측의 환경영향평가(EIA)는 환경에 미칠 효과를 충분히 평가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테스트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부실하고 선진국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회사 측의 EIA는 약 9,030페이지에 이르는 두꺼운 서류로 중요한 정보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일반 시민이나 정부가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 EIA는 산성수 처리공장이 시간 당

9) 수문학(hydrology)은 지구에서의 물의 이동과 분포, 수질 등을 연구하며 수문지질학(hydrogeology)은 수문학 중에서도 지하수의 이동과 흐름을 연구한다.

10) <http://www.ipsnews.net/2011/12/peru-weak-environmental-impact-studies-for-mines/>.

85만 리터의 물을 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풍가 프로젝트가 초당 379리터의 물을 퍼내야 한다면 이는 시간당 140만 리터의 물을 퍼내는 것으로 처리 용량을 한참 초과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지역이 페루법상 “취약한 생태계”에 속한다. 풍가 프로젝트는 5개 강의 분수령에 해당하며 습지대와 호수가 많은 강수량이 많은 지역으로 여러 도시와 마을의 식수원이기도 하다. 풍가 프로젝트 지역의 지표수, 지하수, 샘물 등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 호수의 물을 고갈시키면 전체 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지역의 먹는 물과 생활용수 공급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산 오염원인 폐석과 광미(tailings)는 광산지역에 영원히 남게 되는데 지진이나 폭우는 폐석과 광미 속에 함유된 독성물질을 지표수나 지하수를 통해 널리 전파시킬 것이 확실시되었다.

2. 풍가 개발 반대운동의 전개

야나꼬차는 풍가 광산 환경영향평가서를 2010년 2월 제출하였으며 에너지 광산부는 수자원청(National Water Authority: ANA)과 농업부의 동의를 얻어 같은 해 10월 풍가 프로젝트(No. 351-2010-MEM/AAM)를 승인하였다. 풍가 개발에 대한 우려는 산발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본격적인 반대운동은 광산지역 주민들에 우호적인 구호를 내건 우말라가 취임 이후 말을 바꾸어 야나꼬차의 개발을 추진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풍가 개발지역 주민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1) 2011년 11월의 충돌과 12월의 비상사태 선포

2011년 10월 중순 풍가 개발지가 위치한 엔카나다에 있는 찬타 알타(Chanta Alta)에서 주민들이 까하마르까-밤바마르까(Cajamarca-Bambamarca) 도로를 봉쇄하였다. 주민들은 야나꼬차가 일자리 제공 같은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행하고 수원지와 호수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위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9개의 광산 중장비를 불태우자 회사는 페루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리마에서 중앙정부 관리를 보내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1월 초에는 풍가 사이트에서 20km 떨어진 해발 4,200미터에 위치한 뿔뿔

베르데(Pampa Verde)에서 약 1천명의 주민이 집결하여 광가 개발 포기를 요구하였으며 주지사인 그레고리오 산토스는 11월 9일 주 전체 파업을 선언하였다. 같은 날 FDAC(Frente de Defensa Ambiental de Cajamarca)의 주도 하에 주민들은 까하마르카-밤바마르카 고속도로를 봉쇄하였으며 까하마르카 연방 대학 학생들은 대학을 점거하고 모든 도시교통노조, 교사와 가게들도 파업에 동참하였다. 11월 11일에는 광산 인근 지역 지방정부, 주민, 시민사회 대표들의 회합에서 11월 24일까지 광가 광산개발현장에서 중장비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회사 측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분노한 주민들은 11월 24일부터 11일간 까하마르카 전역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1만 명의 시민이 까하마르카 시내 전역을 행진하면서 광가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 기간 까하마르카의 거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고 공항이 폐쇄되었으며 경찰과 주민의 충돌로 3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기업가들과 정책전문가들은 우말라 대통령에게 시위에 강경 대처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광산기업들이 약속한 다음 10년간 약 500억 달러의 투자를 잃을 수도 있다고 압박하였다.

11월 26일 까하마르카 주의 13개 군(provincia)와 100여개의 지자체 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까하마르카 이익방어전선(Frente de Defensa de los Intereses de Cajamarca)”이 조직되어 광가 개발을 둘러싼 장기전을 준비하였다.¹¹⁾ 한편 11월 28일 월요일 저명한 환경운동가로서 우말라 정권에서 환경부차관을 맡은 호세 데 에차베(Jose de Echave)가 광산의 환경오염을 규제할 국립수자원청(Autoridad Nacional del Agua: ANA)과 환경평가감독원(Organismo de Evaluación y Fiscalización Ambiental: OEFA)이 환경부 산하가 아닌 총리실 산하로 편입되자 이에 항의하여 차관직을 사임하였다. 그는 정부가 환경부의 역할을 축소하려 할뿐만 아니라 광산 갈등에 대처할 아무런 전략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¹²⁾

11) <http://www.mining.com/conga-protestors-block-city-exits-on-day-four-of-anti-newmont-protests/>.

11월 29일 경찰은 비무장 시위대에 발포하여 18명의 주민들이 총상을 입었으며 주민들의 저항으로 8명 내지 30명의 경찰도 부상당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야나코차는 11월 30일 콩가 광산 개발 중단을 선언하였다. 시위가 계속되자 페루정부는 12월 4일 6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배치하였다. 우말라가 광산 갈등 해소를 위해 비상권력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취임 후 처음으로 우말라는 TV에서 지역 정치인과 지방 당국자들의 비타협적 태도로 아무런 대화통로나 민주적 해결책이 불가능하며, 뉴몬트의 광산 개발은 페루 전체에 유익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페루의 양극화된 정치 환경을 중화시키고 빈자와 대기업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온건파로서의 우말라의 통치능력을 시험한 사건이었다. 우말라는 대화로 문제를 풀려 했고 회사에 일시적으로 콩가 광산 개발 작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시위대는 광산의 영구 폐쇄를 요구하였으며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한 우말라는 비상사태 선포에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2) 우말라 정부와 회사의 유화책

우말라는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는 원주민 권리 옹호를 주장하였으나 당선 이후에는 점차 채굴산업의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콩가 사태에 대해서도 개발 추진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우말라는 FDAC 대표인 까하마르까 시위운동을 주도한 윌프레도 사베드라(Wilfredo Saavedra)를 지칭하여 반역혐의로 복역한 사람이¹³⁾ 평생 옹호해본 적 없는 명분을 걸고 범죄자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우말라는 12월 콩가 개발 반대로 야기된 까하마르까 주 전체로 번진 시위 사태 수습을 위해 총리와 여성부, 문화부, 환경부를 맡은 좌파 장관들을 교체하고 새로 10명의 장관을 임명하였다.¹⁴⁾

12) <http://idl-reporteros.pe/2011/11/28/renuncias-y-permanencias/>.

13) 사베드라가 투팍아마루혁명운동(Movimiento Revolucionario Túpac Amaru)에 가입하여 파괴활동 혐의로 1989년부터 10년간 복역한 사실을 지칭한다.

14) 2011년 11월 환경부는 총리 제출 보고서에서 콩가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나 환경부 장관이 12월에 경질되면서 이 보고서는 무시되었다. 신임환경장관 마누엘 비달(Manuel Pulgar Vidal)은 환경부 보고서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하였다(Pretell 2012, 24).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까하마르카 시위운동의 대표들과 중앙정부는 대화 재개에 합의하고 정부는 12월 15일 비상사태를 철회하였다. 뉴몬트 대변인은 정부가 후원하는 대화에 참가하여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며 쏜가의 저수지는 문제가 되는 4개 호수의 현재의 물 저수량의 2배를 제공하여 농민들의 우려를 없애겠다고 발언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다.

3) 2012년 2월의 전국 행진과 동원의 지속

까하마르카 시위운동 지도부는 페루 전역에서 벌어지는 광산회사와 농민들 간의 물 분쟁을 하나의 운동으로 결집시키기 위해 까하마르카에서 리마까지 2천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 물 대행진(Gran Marcha Nacional del Agua 2012)”을 조직하였다. 2012년 2월 1일 까하마르카를 출발한 행진 대열은 전국 각지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면서 까하마르카, 람바예께(Lambayeque), 리베르타드(Libertad)와 앙카쉬(Ancash) 주를 거쳐 9일 리마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도시 외곽에서는 버스나 트럭으로 이동하였으며 주요 도시에서는 도보로 행진하였다. 각지에서 시민들은 이들을 환영하고 음식을 제공하였으며 때로 차표와 콤비(작은 밴 combis)를 탈 돈을 주기도 하였다. 이들은 “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물 없이는 죽는다(Sin Oro se vive, Sin Agua se Muere)”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였다. 이 물 권리를 위한 전국행진은 마르코 아라나 신부가 주도하여 중부의 후닌(Junin)과 빠스코(Pasco), 남부의 아레끼빠(Arequipa), 꾸스코(Cuzco), 모께구아(Moquegua) 주에서도 참가하였으며 모두 70개 이상의 시민 사회단체가 행진에 참여하여 물 분쟁의 심각성과 광산개발로 인한 농민들의 우려를 국내외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하였다.¹⁵⁾ 4월 11일에도 쏜가 개발에 반대

15) 이 행진은 페루의 자연자원 채굴을 둘러싼 공공정책과 담론을 변화시키려는 사회운동 세력의 중요한 결집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은 자원채굴이 경제개발에 “핵심적”이라는 관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가의 공공정책이 깨끗한 물과 건강한 공동체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물에 대한 권리, 사전협의, 자원채굴시 특정 화학물질의 사용 제한, 특정 지역의 광산개발 금지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 행진은 국제적 지지와 관심을 유발하여 스페인에서는 우말라의 스페인 방문시 외국의 광산 투자 증대 제안에 반대하는 사인과 구호가 등장하였으며 2월 3일에는 야나코차 소유주인 뉴몬트 본사가 위치한 미국 덴버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http://www.earthrights.org/blog/>).

하여 24시간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풍가 광산 인근지역인 셀렌딘(Celendin)과 밤바마르까(Bambamarca) 등지의 농민들이 까하마르까 시내 중앙광장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시위 군중들은 주요 도로에 돌과 나무뿌리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였다.

4) 2012년 4월 정부의 이중 전략과 개발 승인

2월 14일 페루 정부는 풍가 개발계획 재검토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들을 지명하였으며 4월 17일에는 정부가 지명한 세 명의 국제전문가들이 뉴몬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검토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들 국제전문가들은 형식적으로는 뉴몬트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풍가 프로젝트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substantive improvements)”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회사 계획보다 더 큰 용량의 저수지를 건설해야 하며 회사가 대체하려는 4개의 자연호수 중 아줄(Azul)호와 치까(Chica)호는 수문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대로 남겨둘 것, 주민들을 위한 사회기금과 1만 명의 일자리 조성 등을 제안하여 사실상 회사 측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Pretell 2012, 24). 회사는 이 조건들을 고려해보겠다고 동의하였으나 국제전문가 보고서와 우말라 정부의 답론은 풍가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였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같은 날 페루 헌법재판소는 상류지역 보호와 풍가 개발을 금지한 까하마르까 주정부 훈령(Ordenanza Regional N° 036-2011-GR.CAJ-CR)이 헌법 위반이라고 선고하였다. 헌법 전문가들은 주정부가 중앙정부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4월 23일 우말라는 TV연설에서 반대운동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회사가 감시평가단의 환경적 사회적 제안을 수용하고 저수지 용량도 원래 회사의 제안보다 4배 더 확장하도록 할 것이며, 정부가 19억 달러를 까하마르까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회사 측은 2개 이상의 호수를 대체할 더 큰 저수지를 건설하고 건기에 물이 부족한 여러 마을에 일 년 내내 물 공급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말라는 6월 23일 국민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까하마르까 지역에 필요한

물 공급을 보장하면서 풍가 광산을 개발을 승인하였다. 우말라는 풍가 프로젝트가 수천 명의 일자리와 엄청난 조세수입을 창출하는 페루에 핵심적 프로젝트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페루정부가 자연자원의 개발에 대한 논란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였다. 아줄호와 치까호를 폐석 적지장으로 하는 풍가 광산개발 계획은 회사의 뜻대로 재개되었다. 야나 꼬차는 저수지 확대와 사회개발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을 뿐이었다. 회사는 2011년 11월 시위로 중단된 저수지 건설작업을 재개하였다.

5) 동원의 재개: 2012년 7월의 사망자 발생과 비상사태 선포

정부의 광산 개발 재개 발표에 분노한 주민들은 7월 3일과 4일 양일간 셀렌딘, 밤바마르카, 까하마르카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들은 우말라가 뉴몬트에게 프로젝트 건설을 계속하도록 허가한 것에 분노하였다. 7월 3일 약 3천명의 시위군중이 셀렌딘(Celendin) 군청을 습격하였으며 군경의 발포로 4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적어도 21명이 부상당하였다. 당국에 의하면 시위대도 군과 경찰에 발포하여 2명이 부상당하고 군인도 1명이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정부는 7월 3일 사망자가 발생하자 까하마르카, 셀렌딘, 우알가욕(Hualgayoc) 지역에 30일간 비상사태 선포하였으며 경찰은 고무탄과 최루탄 등으로 시위 군중을 해산시켰다.¹⁶⁾ 7월 초의 이 시위에서 모두 5명의 시위 참가자가 사망하였다.¹⁷⁾

6) 2012년 8월 반대운동의 승리 - 개발 중단 발표

한편 이즈음 풍가사태를 둘러싸고 5명의 의원들이 우말라의 광산정책에 반대하여 우말라가 이끄는 가나페루(Gana Peru) 여권연합을 탈퇴하고 오스카 발데스(Oscar Valdes) 총리와 내무장관(Wilver Calle)의 사임을 요구하여 우말

16) 5월 29일 2명이 사망한 에스피나르 시위로 선포된 30일간 비상사태가 이제 막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는 우말라 집권 이후 1년 만에 세 번째의 비상사태 선언이었다.
 17) 7월 3일 José Sánchez는 목에, Eleuterio García는 가슴에 Faustino Silva는 머리에, 겨우 16살인 César Medina도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으며 다음 날인 7월 4일 군경은 인근의 Bambamarca 비무장 시위대에 총을 발사하여 26세의 Joselito가 사망하였다 (http://www.ucobserver.org/features/2013/06/big_gold/).

라 정부에 다시 충격을 주었다.

비상사태 선포기간에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풍가 반대 연대 시위가 발생하여 브뤼셀, 뉴욕, 스톡홀름 등에서 7월 20-21일간 페루 대사관 앞에서 풍가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미주인권위원회(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ACHR)도 까하마르카에서의 폭력과 사망자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풍가 사태로 내외의 저항과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우말라는 7월 23일 발테스 총리를 퇴진시키고 후안 히메네스(Juan Jimenez)를 후임 총리로 임명하였다. 결국 히메네스 총리는 2012년 8월 28일 풍가 광산 개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Ipsos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까하마르카주 주민의 78%가 광산개발에 반대하고 있어 주민들의 절대 다수는 풍가 개발을 영구히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⁸⁾ 그러나 Ipsos가 행한 또 다른 여론 조사는 전국적으로는 45%가 풍가 개발에 찬성, 40%는 반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개발을 지지하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자원이 고갈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⁹⁾

7) 회사 측의 개발 재개 시도

뉴몬트나 중앙정부는 개발을 늦추었을 뿐 풍가 개발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회사는 물 우선 전략을 표방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저수지 건설로 연중 음용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논리를 전파하면서 주민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²⁰⁾

18) <http://nvdatabase.swarthmore.edu/content/peruvians-cajamarca-stop-building-giant-gold-mine-2011-2012>.

19) <http://www.reuters.com/article/2012/08/23/us-peru-mining-newmont-idUSBRE87M0MK20120823>.

20) 회사의 “물우선정책”은 주민들이 계절과 관계없이 1년 내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물 저수량을 늘리는 정책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기존의 페롤(Perol) 호를 광미댐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실로 이해되고 있다. 까하마르카 환경방어전선(Frente De Defensa Ambiental de Cajamarca)의 사베드라(Wilfredo Saavedra) 대표는 회사의 소위 물우선 정책은 광산 조업에 필요한 물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광산에서 사용한 물을 정화 처리하여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ttp://lvgaldieri.wordpress.com/2013/06/01/newmont-nonsense-and-good-faith/>).

2013년 5월에는 야나꼬차 광산회사의 페루쪽 파트너인 부에나벤투라의 로끼 베나비데스(Roque Benavides) 사장에 의하면 이미 건설을 완료한 차일와곤(Chailhuagon) 저수지에 이어 주민 반대 없이 빼롤(Perol) 호수의 물을 두 번째 저수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시점에서 광산 건설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 발언이 알려진 며칠 후인 5월 29일 수백 명의 주민들이 빼롤 호수의 상태를 “조사”하려 호수로 이동하던 중 경찰과 대치하여 작은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2012년 8월 이후 소강상태에 빠졌던 대치 국면이 다시 재개되었다. 6월 중순에는 콩가 광산 반대 시위대 4천여 명이 빼롤 호수 주위에서 노숙하면서 회사 측의 만약의 조치에 대비하였다. 회사 측은 “모든 필요한 승인을 얻고 주변 공동체와의 집중적인 관계 개선과정을 마치고 나서 빼롤 광미뎀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콩가 프로젝트의 진전을 위해서는 회사가 지역민의 “사회적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정부가 민간투자를 장려하지만 다수가 발전을 지지하지 않으면 결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후퇴하였다.²¹⁾

IV. 야나꼬차의 대주민 관계와 대응책

1. 불신의 역사

콩가 광산에서의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운동의 기저에는 야나코차 개발 초기부터의 주민들의 국가와 회사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었다. 야나코차는 개발 초기부터 광산 개발 토지를 매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갈등이 깊었다. 1992년 고산지대 농민들은 헥타아르당 100-150솔(당시 약 30달러 정도)에 매각하였으나 4년 후 지가는 6배로 뛰었고 20년이 지난 2010년대 초반 지가는 거의 150배로 뛰어 올랐다(Joles 2010, 32). 더구나 당시 매입과정은 거의 반강제적이어서 회사는 지하자원이 국가 소유임을 내세워 거래에 응하지 않으면

21) <http://www.mineweb.com/archive/peru-protesters-push-to-stop-5bn-newmont-mine/>.

재판에 회부되거나 몰수될 것이라고 주민들을 위협하였다. 주민들 특히 광산 인근 농민들은 광산이 들어오면 취업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주민들 중 회사에 고용된 사람을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토지는 주민들에게 생존의 터전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회사의 선물이 아니라 주민들의 권리이고 나아가 가족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에게 이는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다(Sosa and Zwartveen 2012, 364).

또 다른 불신의 뿌리는 광산 인근의 수량의 감소와 수질 악화였다. 인근 하천은 오염되어 송어가 폐사하는 일이 잦았고 가축들이 이유 없이 죽어갔다. 농사에 필요한 물을 광산이 사용을 금지하여 주민들과 갈등도 잦았다. 심지어는 수은이 인근 까하마르카주의 주도인 까하마르카 시에서도 검출되는 일까지 있어 이후 야나코차가 인근의 킬리시 산에서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려 할 때 농민만이 아니라 도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수질 오염의 불안감은 야나코차에 대한 지역주민의 거부감을 일으킨 가장 큰 요인이었다. 1993년 조업을 시작한 이후 광산 인근 농민들은 여러 차례 화학물질 누출이나 중금속 오염, 폐광석 기타 독성물질의 누출로 여러 차례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주로 1998년부터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2002년까지 제기된 대부분의 문제는 물 오염과 수질 악화로 인한 강과 양식장에서의 송어의 폐사였다. 수질악화로 대장균 수치가 허용치를 넘거나 물의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어선 경우도 많았다. 2000년 6월에는 초로팜과 지역에서 수은 수송 트럭에서 수은이 누출되어 수백 명의 주민이 수은 중독에 노출되었으며 이 사건은 세계적 이목을 끌었다. 사고의 발생과 뒷수습에서 뉴몬트의 대처는 세계적 광산회사라는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회사는 주민의 복지와 생활에는 무관심하였으며 주민들의 회사에 대한 불신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시도된 2004년 야나코차의 킬리시 산(Cerro Quilish) 개발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유발하였다. 킬리시 산 탐사 반대운동은 쾅가 반대운동과 정확히 같은 이유로 촉발되었으며 유사한 경로를 밟았다. 2004년 7월

에너지광산부의 탐사 허가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9월초 수십 명의 부상자를 유발한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어 주 전체의 파업이 전개되었고 정부는 9월 10일 주민들의 수자원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탐사 승인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9월 15일 다시 주 전체 파업이 전개되어 4만 명이 시위에 나섰고 결국 정부는 탐사허가의 법적 효력을 중지시켜 사실상 탐사계획을 취소하였다. 킬리시 개발을 중단시킨 주민들의 우려는 풍가 반대운동에서도 여전히 지속되었으며 승리의 기억은 풍가 반대운동의 추진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이 틀림없다.

2. 무관심, 기만과 회유

야나꼬차는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의 관심사를 이해하거나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의도나 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다. 한 주민에 의하면 “회사는 까하마르카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 회사는 리마에서 중앙정부하고만 소통한다”(Kemp et al. 2013, 10). 회사는 형식적 대주민 담당기구를 두고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실질적 힘이 없었고 필요할 때만 작은 혜택을 약속하는 선거 스타일의 접촉이 주를 이루었다. 회사 측 인사에 의하면 “대주민관계 책임자가 하는 말과 현장에서 엔지니어가 하는 행동이 달랐다. 주민 홍보 담당 직원과는 달리 기술자들은 광석에만 관심을 기울였다”(Guerrero 2009, 355).

회사 내부에서도 미국의 뉴몬트와 페루 파트너인 부에나벤투라 사이에 주민에 대한 접근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뉴몬트 측 임원들은 좀 더 수평적 견지에서 공동체와의 관계를 재설정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페루의 파트너인 부에나벤투라 쪽에서는 공동체와의 관계 재설정 소극적이었다(Guerrero 2009, 355). 뉴몬트의 다소 진전된 입장은 그러나 현장에서는 진지하게 시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말과 행동이 달라 회사의 대 주민 메시지는 기만적인 인상을 주었다. 회사는 주민들의 사회적 저항을 불법시하였으며 주민 동원의 배후에 마약거래조직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였다.

주민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결여와 주민들의 필요에 대한 무관심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야나꼬차가 까하마르카에 들어온 90년대 초부터 보여준 일관된 태도는 주민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었다. 쩡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회사가 보인 태도는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회사는 주민들을 무시했고 농민들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았다. 농민들은 대부분 문맹이고 법에 무지했으며 처음에는 광산개발이 주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회사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한편으로 작은 선물로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 하였다. 회사 측 인사들은 학교에 와서 교복, 배낭, 교육기자재, 마을 축제에 쓰이는 폭죽, 악대에 필요한 악기나 운동경기에 필요한 공 등을 나누어 주었다. 많은 주민들은 쩡가 광산 탐사 초기 야나꼬차가 뿌리는 여러 선물들을 환영하였다. 주민들이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면 회사는 무언가를 주었다. 셀렌딘 주민들은 처음에 회사가 셀렌딘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 정도였다. 그러나 회사의 선물 공세는 지역민의 호의를 얻기 위한 “가식적인” 것이었다(Armstrong et al. 2014, 20).

셀렌딘 지역에서 회사와 주민들 간의 대화가 시작되자 회사 측 인사들은 일자리와 지역개발 프로젝트, 선물 등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질문에는 거만하고 위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회사 측은 주민들의 질문을 중단시키고 당신이 환경전문가나 지리학자나 되느냐면서 공개적으로 조롱하였다. 주민들이 리마에 있는 뉴몬트 사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려 하자 회사는 접수를 거부하고 경찰을 불렀다(Armstrong et al. 2014, 21).

회사는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공청회를 소집하였으나 공청회는 주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소로추코(Sorochocho)에서 멀리 떨어진 차일와곤(San Nicolas de Chailhuagon)에서 개최하였다. 이 지역은 광산 개발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사는 곳으로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셀렌딘에서는 미니버스를 얻어 5시간이나 걸려 극소수 농민만이 이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참석자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은 겨우 1분에 불과하였다. 공청회장 밖

에서는 거의 1천명의 전투경찰이 주위를 둘러싸 반대파에 대한 위압감을 조성하였다(Armstrong et al. 2014, 22).

회사는 지역의 일부 농민순찰대(Ronda Campesina) 활동가들에게 회사에 충성하는 대가로 좋은 일자리와 개인적 혜택을 제공하였다. 마을의 유력한 인사가 회사 측의 회유에 넘어가서 마을을 분열시키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 경우 공동체는 내부에서 분열되고 의심과 비난이 난무하였다. 회사의 이러한 분열 전술은 지역의 저항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회사는 매년 까하마르카 시에서 열리는 향의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켈란 만자나스(Plan Manzanas) 지역 농민순찰대에 신발, 전등, 판초 등을 제공하면서 풀뿌리와 상층 지도부의 분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Joles 2010, 46).

3. 가부장적 관계의 재생산에 대한 반성과 사회적 책임론(CSR)

야나꼬차는 빈곤층과 권력자간의 가부장적이고 후견주의적인 전통적 관계를 재생산하였으며, 충성을 대가로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자원과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일부 마을에서 학교나 운동장 등의 시설을 건설하여 주민들의 환심을 사고 국가의 공동체 투자가 거의 전무한 곳에서 국가의 기능을 대신하였다. 통상적 기업 활동에 어울리지 않는 지역사회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회사는 페루 농촌에 전통적인 후견주의적 행태를 보이게 된다. 야나꼬차는 70년대와 80년대 주정부나 중앙정부가 농민들에 대해 유지했던 후견적 사회관계를 재생산하였다(Guerrero 2009, 354).

회사 내부의 평가도 회사가 광산 인근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전통적 패턴을 따른 점을 인정하고 있다. 킬리시 프로젝트를 주민들의 반대로 포기한 이후 회사 내부의 평가는 대주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배경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반성적 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책임 정책이 개인적인 보상정책이 아니라 까하마르카 발전을 위한 것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분권화를 배경으로 최근 수년간 확대된 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두 번째 결론은 페루 정부의 취약성에 비추어 회사의 대

응이 필요한 복잡한 정치 사회적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역할 수행의 한계, 부족한 자원과 기술적 능력 등 국가 능력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회사의 관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Tanaka y Meléndez, 2009, 93).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야나코차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활동은 대부분 광산 근접 지역에서의 작은 사업들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회사 측이 미국의 대학과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 주체들에게 야나코차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뉴몬트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회사는 1) 까하마르카에 대한 존중 2) 까하마르카 개발 파트너 3) (물과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행위자 4) 투명성과 신뢰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회사 활동의 정당성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Newmont-South America 2013). 뉴몬트 사이트에는 이들 부문에서 진행 중인 몇 가지 사업이 소개되어 있으나 내용의 구체성이나 사업의 결과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이런 노력이 얼마나 진지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회사 측의 진정성은 지역의 거의 유일무이한 환경인권NGO인 Grufides에 대한 회사 측의 감시와 위협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는 널리 알려져 생태투쟁의 상징으로 떠오른 셀렌딘의 농민인 막시마 아꾸냐(Máxima Acuña de Chaupe)에 대한 그 동안의 괴롭힘을²²⁾ 고려할 때 민

22) 야나코차의 거주지 불법 축출 시도에 대해 수년간 싸워온 풍가 인근 호수 지역 농민인 막시마 아꾸냐(Máxima Acuña de Chaupe)에 대한 야나코차의 집요한 괴롭힘과 위협은 악명 높다. 2011년 막시마가 야나코차의 가택 매입 제안을 거부하자 회사는 수차례에 걸쳐 경찰과 군대까지 동원하여 그녀를 폭력적으로 가택에서 몰아내려 하였다. 그녀와 그녀의 딸은 구타로 실신하였으며 아들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그녀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저항하자 회사는 그녀를 토지 불법 점거 혐의로 법원에 고소하였으며 법원은 그녀와 가족 3사람에게 2년 6개월의 징형유예를 선고하고 즉각 집에서 퇴거할 것과 벌금 2천 달러를 선고하였다. 2014년 12월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뒤집어졌으며 여기에는 Grufides 대표인 미르따 바스케즈 변호사의 역할이 컸다(Common Dreams, December 19, 2014). 막시마 아꾸냐의 투쟁은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로 지명되었다(<http://www.commondreams.org/news/2014/12/19/how-one-indigenous-woman-took-multinational-mining-corporation-and-won>).

V. 페루 신자유주의 국가의 억압적 특성

1. 광산 갈등 심화

페루의 광산부문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동시에 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2006년부터 매달 사회적 갈등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호민관청(Defensoría del Pueblo)에 의하면 사회적 갈등은 2006년 7월의 82건에서 2009년 272건으로 급증하였으며 2014년 10월 현재에는 217건의 사회적 갈등이 기록되고 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갈등은 거의 3배나 늘어난 셈이다. 페루 사회적 갈등은 대부분 사회환경적 인 것으로, 2014년 10월의 사회환경적 갈등은 전체 갈등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사회환경적 갈등의 70%가 바로 광산 갈등이다. 즉 페루 사회 갈등의 45% 정도가 광산개발과 관련된 회사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다.²⁴⁾

이런 사회환경적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도 광산개발 허가 지역의 확대에 따라 2004년 4개주에서만 발생하였던 것이 2010년에는 24개 주, 즉 페루 거의 전역으로 확대되었다(Defensoria del Pueblo 2012, 37). 더구나 이런 갈등은 주민들의 시위와 반대운동 그리고 이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이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2005년에서 2011년 9월까지 집단시위가 총 2,196건이나 발생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사망자는 195명(주민 165명, 경찰 30명), 부상자는 2,312명(주민 1,799명, 경찰 513명)에 이른다(Defensoria del Pueblo 2012, 41-53). 2011년 7월 우말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 같은 시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우말라 취임 이후 2012년 9월까지 불과 1년 2개월 동안에만도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적어도 19명이 사망하였다.

광산은 대부분 안데스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광산이 소재한 오지는 페루에서도 극빈층 농민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들은 광산부문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2012년 도시지역 빈곤율이 16.6%인데 비해 농촌지역 빈곤율은 53%에 달하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특히 고산지대 농촌

24) Observatorio de Conglics Mineros en el Perú, No. 15, 2015.

지역의 빈곤율은 5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와 더불어 개발 혜택의 불공평한 분배는 개발지역에서의 주민들의 잦은 항의와 시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

2. 국가의 친기업 편향성

광가 반대운동 전반에 걸쳐 국가의 친기업적 행태는 두 차례의 비상사태 선언과 두 차례의 개각, 의회에서의 지지 세력 이탈을 불러왔다. 흥미로운 점은 우말라 정부가 개각과 정치세력의 이탈이라는 부담을 감수하고도 광가 개발을 밀어붙였다는 점이다. 우말라 정부가 개발 중단을 선언한 것은 다수 사망자 발생으로 인한 정치적 압박과 국제사회의 이목과 여론 때문이었다. 2012년 8월 말의 개발 중단 발표는 한 달 전인 7월초의 대규모 시위에서 과도한 폭력적 진압으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에 항의하여 국제적 연대시위가 전개되고, 미주인권위원회의 우려 성명이 나온 직후였다. 이는 신자유주의 국가도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는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페루 국가는 사실 외국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통상적인 자유주의 국가의 모습보다 더욱 강렬한 자본 유착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가 단순한 투자 지원 기능을 넘어서서 스스로 개발 드라이브의 한 축이 되어 광산 개발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제도적 물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이 페루 정부의 환경훼손을 개의치 않는 투자 우선 정책이다. 광산개발 주무부서인 에너지광산부가 광산 개발과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 규제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한 부서에서 상충되는 기능은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우선순위가 광산 개발과 투자를 우선시하고 있어 환경보호 기능은 사실상 형식화되어 있다. 환경부를 설치하였지만 실질적 영향력을 거의 없고 실제 환경관련 결정권은 에너지광산부에 집중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11월 에차베 환경부 차관의 사임은 환경관리 및 감독기능을 환경부에서 떼내어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결정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또한 환경부의 EIA 평가는 일반적으로 광산개발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

한 경우가 많았다. 기업들이 제공하는 EIA는 일반적으로 광산 활동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안데스 고원지대의 샘이나 습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수원지에 미치는 누적효과도 분석하지 않고 있다. 콩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회사 측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부실한 보고서는 정부에서 아무 문제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르시아 정권에서 뉴몬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승인한 인사(Ramiro del Pino)가 야나꼬차 사의 전직 간부였던 점에서도 국가와 회사의 긴밀한 유착이 확인된다.²⁵⁾ 2007-09년간 에너지광산부의 광산환경총국(general bureau on environmental issues in mining) 책임자였던 바스케즈(Fredesbindo Vásquez)에 의하면 EIA를 검토한 기술진들이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검토 과정에서 정치인들과 기업의 압력이 있었다.²⁶⁾

우말라 정권에서도 이러한 유착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말라는 당선 이후 외국 광산기업의 세금을 인상하고 추가 수입을 사회프로그램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2011년 8월에는 자원 개발 진행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를 필수화하는 “사전동의법(Prior Consultation Law)”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원 부존지역 주민들에게 거부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개발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정부의 손에 있었다. 재계에서는 이 법이 구속력이 없으며 단순히 공동체 지도자들에 말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2013년 5월 호르헤 메리노(Jorge Merino) 에너지광산부장관은 신규 광산 및 석유 개발에서 케추아 언어를 사용하는 원주민 공동체를 사전 동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여 사실상 이 법의 사문화를 시도하였다. 케추아 원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500억 달러 상당의 광산투자 파이프라인이 지연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우말라 정부는 외면상 광산개발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콩가 사태에 대

25) <http://lammp.org/2011/12/10/open-letter-to-the-president-of-peru/>.

26) <http://www.ipsnews.net/2011/12/peru-weak-environmental-impact-studies-for-mines/>.

한 정부의 처리방식에서 보이듯 주민동의 요건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3. 쯔가 갈등에서 나타난 신자유주의 국가의 폭력성

쯔가 반대 시위는 항상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인한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켰으며 결국 5명의 시위 참여주민이 사망한 뒤에야 국가는 개발을 잠정 중단하였다. 쯔가 프로젝트는 우말라 정부 최초의 시위 사망자와 비상사태 선포를 초래하였다. 2011년 11월 시위로 5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2012년 7월 초의 대규모 시위에서 5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부상당하였다.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몽둥이 세례로 시위 참가자들이 피범벅이 된 사례는 쯔가 사태를 촬영한 다수의 동영상에서도 확인된다. 사망자가 발생하자 미주인권위원회는 페루 정부의 폭력적 진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광산 반대운동의 격화와 국가의 비상사태 선포, 군대 파견, 잠정적 개발 중단은 비단 쯔가 시위에서만 아니라 지난 20년간 광산개발 갈등 현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건 전개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전 정권에 비해 비교적 진보적 색채를 가지고 출발한 우말라 정권 들어서도 발생한 다수의 사망자와 잦은 비상사태 선포, 군의 개입은 농민과 원주민들에 대한 신자유주의 국가의 억압적 성격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편 더욱 놀라운 일은 광산회사들이 페루 국립경찰과 자산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국가 경찰이 광산회사들에게서 돈을 받고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Antamina, Gold Fields, Sulliden Gold, Xstrata Tintaya, Minera Coimolache, Yanacocha 등의 다수 광산회사와 계약을 맺어 회사가 요구할 경우 대규모 경찰 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사는 필요 시 경찰의 보호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병참적 지원까지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2013년의 한 보도에 의하면²⁷⁾ 광산회사는 하루 0.48술(약 10달러)을 경찰 책임

27) nacla.org/blog/2013/12/16/peru-police-abuse-pay-mining-companies.

자에게, 0.28솔을 하위직 경찰에 회사 보호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특수 상황에서는 하루 0.78솔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협약은 시위 진압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광산회사가 아닌 경찰이 떠맡게 되는 것이어서 시위대가 사망할 경우 경위 조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권력의 사적 전용은 국가가 주민 보호보다 투자 보호를 더 중시하며 자본 투자 보호 과정에서 주민을 폭력적으로 진압한다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시장에 의탁하는 통상적인 신자유주의 국가의 시장 의존적 특성과는 또 다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나아가 환경 보전을 주장하는 시위를 테러에 준하는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인권변호사인 다비드 벨라스코(David Velazco)에 따르면 “현재의 법률 하에서는 물 권리를 항의하는 주민들을 테러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현행법 아래서 공공 도로 점유 혐의는 8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반면 살인 혐의에 대한 최대 형량은 6년에 불과하다”.²⁸⁾ 국가는 또한 시위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남용하여 활동가와 시위 참가 농민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쾡가 시위자들은 일인당 평균 5개의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며 마르코 아라나에 대한 기소 건수는 무려 25개에 이른다.

IV. 개발 반대운동의 전략과 성과

1. 까하마르카의 정치 사회적 특성

2011년 현재 까하마르카의 안데스 지역 인구는 150만이고 인구의 70%는 농업과 목축에 종사하고 있다. 까하마르카는 남미 최대의 광산이 소재한 지역이지만 페루에서 두 번째로 빈곤한 지역이며 빈곤율은 광산 개발 이후 더 악화되었다(Pretell 2012, 26). 까하마르카 지역은 이로 인한 불만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페루 다른 지역과 달리 강력한 공동체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

28) http://www.ucobserver.org/features/2013/06/big_gold/.

이다. 중부나 남부의 고산지대에서와 같은 농촌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농민순찰대(Ronda Campesina) 전통이 있으나 광산지대에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관개수로로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성을 넘어서는 정치적 충성심이나 사회적 대표성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관개수로 위원회와 용수관리자 위원회 정도가 기본적 조직 단위이며 소도시 시장 같은 좀 더 큰 지역 행위자들과의 연결고리도 부족한 편이다(Tanaka y Meléndez 2009, 81). 이 같이 사회조직이 취약하고 사회적 요구를 조율할 조직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 사회적 파편화, 그리고 국가 기구의 취약성과 지역 당국의 수동성, 지역사회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중재 메카니즘의 결여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까하마르카 지역의 특성이다(Guerrero 2009, 323). 그러나 이러한 취약한 지역 사회의 정치사회 구조와 조직역량에도 불구하고 까하마르카 주민들은 2004년의 회사 측의 킬리시산 개발 시도 및 2011년의 풍가 광산 개발 시도를 무산시켰다. 반대운동의 동력의 원천을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지역의 운동 자원

페루 학자들은 까하마르카 농민 공동체 내부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가진 사회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페루의 광산 개발 반대운동이 지속적인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Guerrero 2009; Tanaka y Meléndez, 2009). 특히 Guerrero(2009, 323)는 까하마르카의 광산반대운동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관철하는 안정된 조직화와 장기적 전략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사회운동적 능력이 결여되어, 주민과 시민사회의 동원이 “사회적 폭발”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가 말하는 “사회적 폭발”은 갈등의 폭발적 분출 이후 갈등과 요구를 조직하고 실천해 갈 집단이나 조직의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일시적 동원을 말한다. 고산지대 농민들의 광산 개발 중지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정치운동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다.

페루의 사회운동 역량은 취약하다. 특히 페루농민연맹(Confederación

Campešina del Perú: CCP)과 전국농민연맹(Confederación Nacional Agraria: CNA)같은 전국 규모의 농민단체나 광산피해공동체전국연맹(Confederación Nacional de Comunidades del Perú Afectadas por la Minería: CONACAMI) 같은 전국적 조직은 내부의 조직적 응집력이 취약하여 이런 종류의 생태적 영토투쟁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Hoetmer 2013, 147). 더구나 고산지대에 널리 흩어져 농민으로서의 자급자족적 삶을 이어가는 있는 광산 인근 주민들이 응집력 있는 사회운동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쫓겨 반대운동은 농민들의 필요에 의해 성립된 지역의 자발적 조직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고산지대 농촌 지역에서 기본적 조직단위는 관개수로와 관개자위원회(junta)였다. 다음으로는 농민순찰대(Ronda Campešina)가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까하마르카에서 전통적으로 주요 사회조직이었다. 원래 순찰대는 오지에서 가축도둑질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농민들은 마을 공동체 특유의 사법 체제를 발전시킴으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자결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1993년의 헌법으로 농민들의 관습적 권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광산기업이 들어오자 농민순찰대는 농민들이 광산 채굴 확장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로 기능하였다. 1999년에서 2004년 사이 농민순찰대는 야나꼬차의 권리 침해에 대해 인권과 생태를 방어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운동단체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Joles 2010, 23).

농민들의 자생적 지역 조직 외에 중요한 것은 지역의 환경 및 인권단체들이다. 1990년대 좌파 활동가들이 주축이 된 운동단체인 까하마르카환경보호전선(Frente de Defensa Ambiental de Cajamarca: FDAC)는 2004년의 킬리시산 개발 반대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²⁹⁾ 쫓겨 프로젝트 반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Grufides는 2001년 마르코 아라나 신부의 주도하에 설립된 교

29) Frente de Defensa는 2004년 9월 7일 까하마르카 주 전체 파업을 선언하였으며 9월 8일 조직된 시위에는 거의 1만 명의 시민이 참가하였다.

수 변호사 환경운동가 등이 결합된 활동성이 가장 뛰어난 환경단체로서 풍가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³⁰⁾30) 까하마르카에서 태어나 성장한 마르코 아라나는 해방신학의 영감을 받아 1990년에 신부가 되었으며 자신의 삶을 빈자와 주변인을 위해 바쳤다. 2001년 그는 농민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Grufides를 창설하였으며, 3년 후 농민과 야나코차 사이의 갈등을 중재한 공로를 인정받아 페루에서 가장 저명한 인권상을 수상하였으며 타임지는 그를 2009년 환경 영웅(Hero of the Environment)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는 그가 정당(Tierra y Libertad)를 창립하였으며 추기경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성직자 신분을 정지시켰다(Boyd 2010, 13).

마르코 아라나 신부는 생태보호적 정치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0년 정치조직인 “토지와 자유(Tierra y Libertad)”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기타 광산에 비판적인 다른 환경 NGO들로는 대학 교수, 사회지도자, 농민지도자들로 구성된 ADEA(Asociacion de Defensa y Educacion Ambiental), 까하마르카 대학 교수인 닐톤 데자(Nilton Deza)가 이끄는 ECOVIDA(Asociacion para la Defensa Ambiental de Cajamarca) 등이 있다(Tanaka y Meléndez 2009, 89). 그러나 이들 NGO들은 매우 영세할 뿐만 아니라 회사측의 방해공작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쉽지 않고³¹⁾ 아라나 신부가 조직한 “토지와 자유(Tierra y Libertad)”라는 생태 정당 역시 전국적 지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전국의 환경단체나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장애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 정당에 대한 심정적 지지와는 별도로 실제 활동에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³²⁾

풍가 반대운동은 지역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있으나 동시에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는 지방 정치인들도 반대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2011년 11월 26일 결성된 “까하마르카 이익방어전선(Frente de Defensa de los Intereses de Cajamarca)”의 주체는 바로 까하마르카 주의 13개 군(provincia)와 100여개의

31) 필자의 Nilton Deza 교수와의 인터뷰(2010. 5. 28.).

32) Rodrigo Carpio Challos(ONACAMI: Coordinadora Nacional de Comunidades Afectadas por la Minería) 경제담당 staff와의 인터뷰(2010. 6. 2.).

지자체 장들로 구성된 협의체였다.

이렇게 보면 쾡가 반대운동에 참여한 주요 사회적 주체는 피해 당사자인 광산 인근 농민들과 소수의 NGO, 물 오염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들의 표를 의식한 지역의 정치세력들이다. 비록 이들의 시민사회 조직역량이 제한적이고 비교적 고립된 환경에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적 자원 역량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투쟁을 주도한 핵심적 조직은 지역사회에 장기간 뿌리내리고 있었으며, 이들 생업의 필요를 위해 만들어진 일상적 조직은 투쟁국면에서는 사회적 동원 조직으로 전환되었다. 여기에 취약하다고는 하나 지역의 환경이익과 환경정의를 지키려는 소수 환경 및 인권 조직들이 긴장이 높아지고 투쟁의 구체화되는 국면에서 다른 조직과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를 높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다수 시민과 지방 정부, 지역 정치인들이 반대운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정치적 기회구조도 충분히 열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시민사회의 조직 역량이 장기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에는 미흡하였다는 전술한 여러 학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시위운동을 전개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규모 동원은 농촌의 풀뿌리 조직이나 영세한 NGO의 조직역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물 문제에 위협을 느낀 까하마르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거한 것이었다. 동원의 성과는 야나코차에 대한 불만의 누적과 함께, 물 문제가 농민만이 아니라 까하마르까 시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슈의 심각성이 그 자체로서 동원을 촉발하고 연대를 결합시키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슈의 중요성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농민들의 지역 영토에 대한 통제력이다. 주민들은 광산회사의 물류 수송에 중요한 도로나 길목을 점거하여 이슈를 전파하고 갈등을 촉발할 수 있었다. 이런 통제력은 경찰과 군대가 상시적으로 지역을 장악하지 않는 한 지역주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된다.

또 하나의 이슈 확산 전략은 환경과피와 인권침해 현황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이었다. 2012년 7월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활동가들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쏭가 반대 연대 시위를 조직하였으며 브뤼셀, 뉴욕, 스톡홀름 등에서는 7월 20-21일간 페루 대사관 앞에서 쏭가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CEJIL (Center for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FEDEPAZ(Fundación Ecuémica para el Desarrollo y la Paz) 등의 국내외 NGO 단체들은 미주인권위원회(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ACHR)에 서한을 보내 정부가 소도시에서의 시위에 군대를 동원하고 민간 기업을 위해 경찰을 동원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비상사태를 빌미로 대화를 중단하고 있으며 도로점거 등의 사회적 항의에 대해 살인사건보다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미국의 환경NGO인 Earthworks와 기독교 단체들(Christian Brothers Investment Services, Maryknoll Sisters)은 2012년 4월 미국 델라웨어에서 열린 뉴몬트의 주주 총회에서 2004년 킬리시 산 개발 포기 이후 회사가 당시의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얼마나 충실히 따랐는지 비판하면서 뉴몬트의 대주민전략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표하였다. 이들은 회사가 “사전 통보를 거친 자유로운 주민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원칙에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³⁴⁾

2012년 8월 하순의 정부의 개발 중단 조치는 거의 10개월에 걸친 지역, 전국, 국제사회에서의 동원과 조직 활동 전개의 결과였다. 두 차례의 대규모 동원과 이로 따른 두 차례의 비상사태 선언과 두 차례의 개각, 6개주 70여개의 운동단

적”이라는 관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가의 공공정책이 깨끗한 물과 건강한 공동체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물에 대한 권리, 사전협의, 자원채굴시 특정 화학물질의 사용 제한, 특정 지역의 광산개발 금지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 행진은 국제적 지지와 관심을 유발하여 스페인에서는 우말라의 스페인 방문시 외국의 광산 투자 증대 제안에 반대하는 사인과 구호가 등장하였으며 2월 3일에는 아나코차 소유주인 뉴몬트 본사가 위치한 미국 덴버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http://www.earthrights.org/blog/>).

34) https://www.earthworkSACTION.org/media/detail/shareholders_NGOs_raise_questions_about_newmont_minings_social_and_enviromn#.VmQE-KSheUl.

체가 참가한 “전국물대행진”을 통한 전국적 이슈 확산, 그리고 국제적 여론 악화의 압력이 최종적으로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낸 것이었다.

VII. 결론

페루 정부는 1990년대 초 후지모리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민영화와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광산부문을 개발해 왔으며 특히 광산부문을 페루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신자유주의적 채굴 경제모델은 정부의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여전히 지배적인 경제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지자 페루 정부는 각종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법령을 통과시켜 외국기업의 광산 투자를 유도하려 하고 있는 것도 페루 엘리트 사이에 신자유주의 채굴 경제모델이 여전히 지배적 모델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페루 국가는 그간 광산회사와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면 항상 광산회사 편에 서왔으며 수 년전부터는 시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주민들의 반대를 억압하였다.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환경 관련 반대운동의 배후에는 테러리스트나 마약조직이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으며 리마를 비롯한 도시 주민들의 상당수는 고산지대 농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광산개발 드라이브를 찬성하고 있다.

야나코차는 중앙정부 및 경찰의 강력한 비호를 받으면서 지역에서 주민들에 대한 기만과 분열책으로 개발이 지역사회의 생태계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외곽하고 호도하여 농민들의 생업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였다. 환경 피해를 은폐하고 개발을 선호하는 에너지광산부의 법규과 관행,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 생존권 보호를 위한 시위활동을 테러활동으로 규정하는 법제도, 회사의 주민 권익 침해와 반대세력에 대한 위협과 주민 분열책으로 농민과 주민들은 자신의 영토와 자연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였다.

이 점에서 페루 채굴산업에서 보이는 신자유주의적 양상은 국가와 기업으

로 구성되는 개발연합의 제도적 물리적 재정적 권력의 우위를 배경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존, 생업을 파괴하는 강탈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원 개발이 착취의 차원을 넘어서 자원과 생존권의 강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Sassen 2014; Harvey 2005). 쾡가 개발 사례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광산개발의 현장은 정보의 왜곡, 정부의 억압과 폭력, 회사의 기만과 주민 분열책으로 점철된 혼란과 불신의 현장이며 결코 합리적 시장 결정과 정보소통의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는 기업과 거의 한 몸처럼 결합되어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경찰과 군대, 사법제도를 동원하여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지역사회 조직들을 억압하고 있다. 쾡가 광산 반대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신자유주의적 개발 공간은 반민주적 인권침해가 수시로 자행되고, 주민 자치 정신을 파괴하고, 불의를 형식적 법치로 은폐하며, 중앙정부와 광산기업이 합작하여 정보를 왜곡하고 소통을 방해하는 무자비한 착취와 강탈의 공간이었다.

한편 자원과 권력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생적 조직력과 대규모 동원을 통해 중앙정부와 회사의 개발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기조가 지속되어 온 페루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지역의 저항 잠재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페루의 광산 갈등은 파편화된 형태로 지역에 따라 전개되었으며 전국적 차원의 공동의 의제나 연대를 위한 조직적 활동은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Hoetmer(2013, 149)에 의하면 페루의 광산갈등 지역은 공동의 목표와 페루 정부라는 공동의 타겟, 담론과 비전의 공유, 자원조직망, 활동가들의 교류, 지도자들의 회합, 대안 언론 등을 기반으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다. 이 점에서 페루의 사회적 투쟁은 지역차원을 넘어서 전개되고 있으며 쾡가 투쟁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까하마르카 지역주민의 10여년에 걸친 킬리시 개발 저지 및 쾡가 개발 저지는 이 지역 저항운동의 풀뿌리 연대와 이슈 전파 능력이 외형상의 조직적 자원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사회적 동원 자원이 부족한 까하마르카 지역이 정부의 개발 드라이브를 중단시킬 수 있었던 배경은 신자유주의 국가의 형

식적 민주주의 체제가 제공하는 집단적 동원과 저항의 가능성, 정부나 기업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정의라는 공감대, 세계화라는 소통공간이 제공하는 지역, 전국, 국제사회를 가로지르는 횡적 연대와 압력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이 주도한 세계화 과정이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수단과 대안 사회 모색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피터 에반스(Evans 2008)의 관찰은 까하마르카 저항 운동에서도 확인된다. 쟁기 개발반대운동의 성과는 강력한 조직과 재정적 기반 등 운동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사회운동론의 상식에 도전하고 있다. 쟁기 사례는 신자유주의적 개발이 초래하는 인권 침해와 오염, 이에 수반되는 고통과 분노의 전국적 국제적 전파와 확산은 정부와 기업의 행태를 교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까하마르카 주민의 동원과 투쟁이 일군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도 없지 않다. 동원은 쟁기 개발을 저지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이를 기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채굴산업의 개발 모델에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사회적 세력 확대나 채굴 관련 제도를 개혁하는 제도적 변화를 불러오지는 못하였다. 이는 단지 까하마르카만의 문제가 아니라 페루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산 갈등이 사회적 갈등에 그칠 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일반적 한계이기도 하다. 한 지역의 투쟁에서 다양한 지원과 연대가 작동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범위와 강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광산 갈등 지역의 이해관계가 같아도 이를 공동의 의제와 조직으로 담아내는 데는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12년 까하마르카, 에스피나르, 안다와이라스(Andahuaylas)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성격의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시위 날짜와 의제를 조율하는데는 실패한 것도 한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동원을 통해 당장이 목표를 달성한 후에 오히려 동원의 조직력이 지속되지 못하고 약화되는 반대운동 내부의 사정도 작용하고 있다.³⁵⁾

35) Hoetmer(2013, 150-151)는 운동 내부의 긴장과 권력 다툼, 이해관계의 대립, 전략과 전술의 차이가 존재하며 투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는 이런 문제들이 잠복되지만 투

사회운동을 스스로를 정체성을 정립하고 행동 목표를 정의할 수 있는 집단적 행위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과 조직을 전개하는 과정이라고 보면(Guevara 2014, 65) 전술한 페루 학자들의 지적처럼 쏭가 개발 저지 이후 까하마르카 지역사회가 사회운동의 발전에 기대되는 공동이익의 인식에 기반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도 변화를 위한 행동 전략, 확대된 조직과 안정된 리더십, 대안적 발전 담론의 효과적 전파 등의 활동을 충분히 전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민들은 오히려 잠정적 개발 중단 이후 정부와 기업이 다시 개발에 착수하지 않도록 산정 호수를 감시하고 개발 징후가 보일 때마다 항의 시위를 조직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 동원 자체가 상당한 정도의 조직력과 응집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까하마르카 개발 반대 세력들이 광산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주도권을 유지하기 보다는 수동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지방분권화로 지방정부나 주정부의 권한이 확대되고 많은 지방 정치인들이 개발보다 보존을 중시하고는 있으나 채굴산업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채굴 관련 제도를 바꾸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앞서 쏭가 반대운동에서 페루 헌법 재판소가 쏭가 개발을 금지한 까하마르카 주정부 훈령을 무효화한데서도 드러난다. 리마의 중앙정부가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거시경제의 안정과 빈곤완화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 리마 등지의 도시민들이 환경 NGO들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제정책이나 채굴 관련 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권력 자원의 불평등한 분포에 비추어 볼 때 페루에서의 광산 개발지역 인근 주민들의 인권 및 환경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역시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쟁이 승리한 후에는 이러한 이견과 잠복된 긴장이 표면화되는 경향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런 조직과 투쟁동력의 이완에 기여하는 요소로 투쟁조직의 임기응변적 구성, 리더의 개인주의적 성향, 지역 리더들 간의 정치적 경쟁, NGO들 간의 갈등 등의 원인을 들고 있다.

참고문헌

- Armstrong, Rita, Caroline Baillie, Andy Fourie & Glevys Rondon(2014), *Mining and community engagement in Peru: Communities telling their stories to inform future practice*, International Mining for Development Centr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IM4DC, Action Research Report, May.
- Barretto, Robert, Amanda Heyman, Lauren Schrero & David Weiss(2007), *Harmonizing Growth & Environmentalism in the Peruvian Mining Sector: Lessons from Yanacocha*, University of Michigan, <http://www.umich.edu/~ipolicy/IEDP/2007peru/4> %20Harmonizing%20Growth%20&%20Environmentalism%20in%20the%20Peruvian%20Min.pdf
- Bebbington, Anthony, and Denise H. Bebbington, Jeffrey Bury, Jeannet Lingan, Juan P. Muñoz, Martin Scurrah(2008), “Mining and Social Movements: Struggles over Livelihood and Rural Territorial Development in the Andes”, *World Development*, Vol. 36, No. 12, pp. 2888-2905.
- Boyd, Stephanie(2010), *The Price of Gold*, Guarango and Quisca, <http://www.guarango.org/downloads/The-Price-of-gold-booklet-eng.pdf>.
- BURY, JEFFREY(2008),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Livelihood Transformations in the Peruvian Andes: An Actor-Oriented Political Ecology”, *Human Organization*, Vol 67, No. 3, Fall, pp. 307-321.
- Center for Social Responsibility in Mining(2013), *Listening to the city of Cajamarca: A Study Commissioned by Minera Yanacocha*, March,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http://www.newmont.com/sites/default/files/u110/CSRM_Listening-Study_Final-Report.pdf.
- Chipana, Claudio(2012), “The Conga case and Humala’s government”, November, 4, <http://www.theprisma.co.uk/2012/11/04/the-conga-case-and-humala%E2%80%99s-government/>.
- Evans, Peter(2008), “Is an Alternative Globalization Possible?”, *IRLE(Institute for Research on Labor and Employment)*, UCLA, Working Papers, 2009-03.
- Guerrero, Carlos Meléndez(2009), “Movilización sin movimientos. El caso de los conflictos entre comunidades y la empresa minera Yanacocha en Cajamarca”, in Romeo Grompone & Martín Tanaka(eds.), “Entre el Crecimiento Económico y la Insatisfacción Social: Las Protestas Sociales en el Perú Actual”, *IEP(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 Guevara, Anahí Durand(2013), “De crisis y estallidos. Movimientos sociales, política y antagonismo en tiempos de presión extractiva”, *OSAL(Observatorio Social de América Latina)*, No. 34, CLACSO, noviembre de 2013, pp. 129-142.
- Hoetmer, Raphael(2013), “Reflexiones sobre movimientos sociales, democracia y minería en Perú”, *Contrapunto*, Junio, Montevideo, Uruguay.
- Joles, Doron(2010), “International Gold Mining, Rondas Campesinas, and the Transformation of Sturcutre in Rural Cajamarca, Peru”, Master Thesis in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Urrecht University.
- Kemp, Deanna, et al.(2013), *Listening to the city of Carjamarca: A study commissioned by Minera Yanacocha*, March, CSRM(Centre for Social Responsibility in Mining), SMI(Sustainable Minerals Institute),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http://www.newmont.com/sites/default/files/u110/CSRM_Listening-Study_Final-Report.pdf.
- Moran, Robert E.(2012), *The Conga Mine, Peru: Comments 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LA) and Related Issues*, Environmental Defender Law Center, Bozeman, Montana, <http://denjustpeace.org/wordpress/wp-content/uploads/Peru-Conga-REM-Rept-English-March-84.pdf>.
- Möller, Johanna and Maria Nordin(2014), *A Golden future?: A qualitative field study performed in the Peruvian town Celendín about the local youth and the geopolitical event of mining*, Arbetsrapporter Nr.936, Uppsala Universitet.
- Newmont(South America)(2013), “A Legitimate Path Forward: Yanacocha’s Community Engagement Progress”, <http://www.newmont.com/sites/default/files/u110/LegitimacyApproach1.pdf>.
- Olivera, Roxana(2013), “Standing up to big gold”, *The United Church Observer*, June 6, http://www.ucobserver.org/features/2013/06/big_gold/.
- Pascó-Font, Alberto, Alejandro Diez Hurtado, Gerardo Damonte, Ricardo Fort, and Guillermo Salas(2001), “Peru: Learning by Doing”, in Gary MaMahon and Felix Remy(eds.), “Large Mines and the Community: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s in Latin America, Canada, and Spain”,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pp. 143-198.
- Perlez, Jane and Lowell Bergman(2005), “Tangled Strands in Fight Over Peru Gold Mine”, *New York Times*, October 25, 2005, <http://query.nytimes>.

com/gst/fullpage.html?res=9B07E3D7103FF936A15753C1A9639C8B63.

Pretell, Mirella(2012), "In Quest of Hydric Justice: the Case of Conga, Cajamarca Peru", Development Planning Unit, Thesis for: MSc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University College London.

Rees, Caroline, Deanna Kemp and Rachel Davis(2012), "Conflict Management and Corporate Culture in the Extractive Industries: A Study in Peru",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itiative Report*, No. 50, Cambridge, MA: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Royo, Luis Rodríguez-Piñero(2009), "Las Agresiones del Desarrollo: Pueblos Indígenas, normas internacionales e industrias extractivas", *Relaciones Internacionales, GERI-UAM(Grupo de Estudios de Relaciones Internacionales-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 España, No 11, Junio 2009, pp. 43-78.

Sassen, Saskia(2014), *EXPULSIONS: Brutality and Complexity in the Global Econom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Sosa, Milagros, and Margreet Zwartevcen(2012), "Exploring the Politics of Water Grabbing: The Case of Large Mining Operations in the Peruvian Andes", *Water Alternatives*, Vol. 5, No. 2, pp. 360-375.

Tanaka, Martín y Carlos Meléndez(2009), "Yanacocha y los reitoerados desencuentros: gran afectación, débiles capacidades de acción colectiva", in Jose de Echave et. al., *Minería y Conflicto Social*, IEP, CIPCA, CBC, CIES, Lima, pp. 73-97.

Yanacocha(2012), *Reporte de sostenibilidad 2012*, Lima, Yanacocha.

Zegarra, Marco Arana(2004), *IMPACTS OF MINERA YANACOCHA'S ACTIVITIES ON WATER RESOURCES AND THE AFFIRMATION OF CITIZEN RIGHTS*, Grufides, Cajamarca, Perú.

Zegarra, Marco Arana(2012), "El derecho al agua en comunidades afectadas por actividades mineras", December 18, 2012, <http://servindi.org/actualidad/79131>.

오 삼 교

위덕대학교
sgoh@uu.ac.kr

논문투고일: 2016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4월 17일

게재확정일: 2016년 4월 18일

Mining conflicts in Neoliberal Peru: the case of Conga project

Samgyo Oh

Uiduk University

Oh, Samgyo(2016), "Mining conflicts in Neoliberal Peru: the case of Conga project",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1), 107-147.

Abstract The movement against the Conga project in Northern state of Cajamarca is a noteworthy case in that in neoliberal Peru, where the state and mining companies form a strong alliance and impose ruthless drive for the mining projects, weak civil society groups and people in the region were able to halt the Conga mine project.

Peasants near the mining site opposed the project for fear that Conga mine project would divest them of clean water essential for their agricultural activities and people in urban areas, especially in the city of Cajamarca, were angered by the reckless ways Yanacocha mining company have shown in handling water issue which is vital for the people's life. Yanacocha have had a record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maintained neglectful attitude towards peasants around mining sites, thus building bad reputation. People in communities around the Yanacocha mining sites have been abused by the threatening and deceitful behavior of the company.

The Peruvian state, on its part, has not hesitated using violence in breaking opposition movement. Five people were killed and hundreds injured by the police during the confrontation with the police. However, most important was the continuous mobilization of the people including two large scale demonstrations and state-wide strikes. With the strenuous mobilization against the project for full one year which incurred two emergency measures and cabinet shake-ups the government finally gave in.

The success of the opposition movement was not necessarily because civil society was strong enough to induce the concess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but because the character of the issue, enough supply of clean water, was a vital and unnegotiable issue for the people and because the stories of abuse and neglect by the company and the state were instrumental in exert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essure toward the Peruvian state.

Key words Peru, Neoliberalism, Conga Project, Yanacocha, Mining conflicts